탄 원 서

제출 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 귀중 [현재 재판부·사건번호 제출 전 확인]
대상자	방정환	준장	전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혐의 및 절차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관련
사건번호	_____ [공식 사건검색 후 기재]

1. 시민으로서 드리는 탄원

저는 피고인 방정환과 친족·친분 관계가 없는 시민이며 전체 재판기록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제2수사단 부단장 직책의 수락과 실제 행위 사이의 간격를 사실과 증거로 구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의 무고함이나 인품을 직접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개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책임 범위를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2. 현재 확인되는 사건 경과

특검은 계엄 관련 사전 회동과 제2수사단 부단장 역할을 맡기로 한 혐의 등을 제기하였으며, 2026년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결심공판에서 본인은 사전 모의·가담 및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이지 곧바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3. 개인별로 가려야 할 사실

누가 제2수사단 구성안을 작성하고 부단장 직책을 부여했는지, 그 임무를 본인이 수락한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 기획 문서에 기재된 역할이 실제 수사·체포 준비로 이어졌는지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반대되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회동 참석 여부와 공범으로서의 실행 관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한 지시, 전달한 명단, 소집한 인원, 실제 처리한 업무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계획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주십시오.

5. 적용 법률과 판단 요소

형법 제87조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의 유형 구별)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2수사단 부단장으로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사정과, 내란의 목적을 인식해 중요한 임무를 실제 수행했다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단장·부단장 직책 수락, 사람·장비 동원, 체포 실행 준비의 연결을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6. 사건기록에서 특정하여 확인할 증거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의 정확한 시점·참석자·발언 내용, 제2수사단 조직표 작성자, 방정환에게 전달된 명령·수락의 기록, 실제 파견·체포 조치가 있었는지 대조해 주십시오.

7.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비적 양형 요청

계획·조직표 단계에 머문 행위와 강제력이 실제 행사된 행위는 위험성과 관여 정도가 다릅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실질적 결정권과 실제 집행 여부를 형에 반영해 주십시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주시되, 확인되지 않은 반성·가족관계·건강을 선처 사유로 추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8. 결어

특히 제2수사단 부단장 직책의 수락과 실제 행위 사이의 간격를 상세한 증거로 확인하시어, 피고인 방정환의 행위 중 고의와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십시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의 실제 역할에 상응하는 판단을 청합니다. 재판의 독립성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확인 가능한 공개 출처 (보도는 공판조서·판결문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09.18 뉴시스 | 군 관계자 8인 결심공판·구형·방정환 최후진술